
월간 일본 동향

2021년 7월

본 자료를 활용하실 경우, 해외수산협력센터
(044-868-7833)로 문의/확인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일본 수산 동향

- (1) 참다랑어 IQ 7할 어획 실적, 3할 균등 배분 01
 - (2) 한국·대만·일본, 장어 치어 공급 상한 동결 04
 - (3)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량 상한에 관한 국제 논의 06
 - (4) IUU 근절을 위한 수입 금지 로드맵 구체화 제안 08
-

일본 수산 동향

(1) 참다랑어 IQ 7할 어획 실적, 3할 균등 배분

일본 수산청은 수산 정책 심의회 자원 관리 분과회를 개최, 내년부터 실시하는 태평양 참다랑어 대형어 (30kg 이상) 개별 어획 할당 (IQ) 제도 초안을 제시했다.

- 일본 수산청이 제시하는 태평양 참다랑어 대형어 (30kg 이상) 개별 어획 할당 제도는 다음 관리년도의 대신 (장관) 관리 어업으로 실시
- IQ 제도는 신청에 따라 각 어선의 어획 할당 비율을 먼저 결정
- 해당 관리 구분의 어획 가능량 (TAC)가 정해지면, 각 어선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IQ를 선정
- 초안에서는 '22-'24년의 할당 비율 설정에 대해, 할당 비율의 7할을 '18-'20년 어획 실적 세어에 근거하여 배분, 나머지 3할을 어선 수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
 - 참가한 복수의 위원이 수산청의 초안을 평가
 - 참고인으로 의견을 개진한 어민 중에서는 신규 참가자에의 할당이 적어진다고 반대가 있었음
- 수산청은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최근 3년간의 어획이 없어도 3할의 균등 배분으로 1척 당 약 600kg이 할당됨
 - 600kg은 1 항해분 어획량에 상당하므로 최소한 불합리하지는 않다는 설명

-
- 수산청은 관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어획 가능 기간을 주년(1-12월)으로 할 것을 제안
 - 할당 비율 설정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 관리년도이지만, 어획 실적을 이용한 설정을 하는 것에서 단축하여 3 관리년도를 제시했음
 - 동 비율 설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창업인가를 받은 자 가운데 사용 선박의 총톤수가 150톤 미만이고 부연승을 사용하는 자에 한함
 - 가디랑어 중심의 조어선과 상어, 눈다랑어를 어획하는 총 톤수 150톤 이상의 연승어선에 대해서는 참다랑어 어획은 혼획 정도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 구분을 두기로 함
 - 어민으로부터는 (1) 3 관리년도가 아닌 2 관리년도로 해줬으면 한다
(2) 위반한 사람에게는 제대로된 시정 조치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수산청은 동 비율의 설정 기간에 대해 더 짧은 2년으로 고려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향을 반영하여 재검토하고자 한다고 답변
 - 벌칙에 대해서 IQ를 초과하여 어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어획량이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 향후, 다음 달까지 30일간 의견 공모를 실시 9월경 개정안을 동 분과회에 자문, 결정할 예정
-

○ 올해 11월 15일에 동 할당 신청을 마감

- 올해 12월 15일, 동 할당과 IQ를 설정해 내년 1월부터 관리 개시를 목표로 함

출처 : 미나토 신문

일본 수산 동향

(2) 한국·대만·일본, 장어 치어 공급 상한 동결

일본, 한국, 대만은 27일, 장어 국제적 자원 보호·관리와 관련된 제14회 비공식 협의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발표했다.

	항목 / 년	2017/18	2018/19	2019/20	2020/21
일본	장어 치어 채포량	8.9	3.7	17.1	11.1
	자포니카 장어 공급량	14.2	15.2	20.1	18.1
	기타 장어 공급량	0.03	0.1	0.059	0.001
	공급량 합계	14.2	15.3	20.2	18.1
대만	장어 치어 채포량	1.1	2.75	5.2	5.7
	자포니카 장어 공급량	1.03	0.8	8.14	3.28
	기타 장어 공급량	0.05	0.14	0.12	0.09
	공급량 합계	1.08	0.98	8.3	3.4
한국	장어 치어 채포량	1.0	0.6	4.5	2.5
	자포니카 장어 공급량	5.3	1.3	10.4	7.3
	기타 장어 공급량	3.7	0.2	0.7	0.3
	공급량 합계	9.0	1.5	11.1	7.6

- 다음 어기 11월~내년 10월 일본 장어 치어 (시라스 우나기) 공급량 상한은 현 어기와 동일 (일본 21.7톤, 한국 11.1톤, 대만 10톤)
- 장어 치어 공급 상한이 36톤으로 가장 많고, 본래 비공식 협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중국은 일본의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참
 - 중국을 제외한 3자 간의 협정이 성립됨

- 2014년 공동 성명 발표 이후의 각국의 보존관리조치에 대해 보고, 향후 취할 조치 내용, 시라스 우나기 채포, 공급량 등의 통계를 명확히 함
- 이번 어기 장어 치어 이케 이레 양은 일본이 18.1톤, 한국이 7.3톤으로 두 국가 모두 공급 상한보다 적었음
 - 대만은 4월 30일까지의 속보치로 3.28톤
- 공동 발표에서는 일본이 올해 2월부터 장어 치어를 1년 내내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나, 한국이 작년 8월 28일에 장어 양식업을 “보고제”에서 일본 대만이 실시하고 있는 “허가제”로 변경한 것을 보고
- (장어 관련 첫 과학자 회의 개최) 향후 대응으로는 다음 어기의 공급 수량 상한을 결정하는 것 외에 자원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과학적인 조언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자 회의 첫 회를 올해 후반에 개최
 - 본 회의를 계기로 향후에도 장어 관련 과학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해갈 방침 장어 유통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확인
- 동 회의는 일본 장어를 이용하는 주요국·지역에서 실시되는 회의
 - ‘14년 제7회 회의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 대만 4자 간의 회의로 공급량 제한이나 국제적인 양식 장어 관리 조직 (ASEA) 설립 등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협의를 계속해왔음

출처 : 미나토 신문

일본 수산 동향

(3)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량 상한에 관한 국제 논의

국제적으로 어획량이 규제되어 있는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회의가 27일부터 개최된다.



-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회의에서 일본은 어획량 상한을 20% 증가시키려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태평양에서 어획할 수 있는 참다랑어에 관한 국제회의는 27일부터 3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됨
 - (참가국) 한국, 일본, 대만, 멕시코, 미국 등의 국가가 참가
- 각각의 국가, 지역의 자원 관리 상황이나 어획량 상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일본은 산란할 수 있는 참다랑어 자원량이 '11년 이후 회복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등 태평양에서의 어획량 상한을 20%로 증가시키고자 제안할 예정

-
- 일본이 상한을 늘리고자 제안하는 것은 4년 연속인데, 지금까지 미국 등 자원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반대가 있었음
 - 작년에는 처음으로 개최된 온라인 회의로 논의가 깊어지지 못한 채, 쿼터 상한 증가는 실현되지 않았음
 - 일본 수산청에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획량을 늘리더라도 향후 자원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 NHK

일본 수산 동향

(4) IUU 근절을 위한 수입 금지 로드맵 구체화 제안

일본의 복수의 비정부 조직 (NGO)로 구성된 불법·비보고·비규제 (IUU) 어업 대책 포럼이 21일 개최되었다. IUU 근절을 위한 제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 IUU 어업 대책 포럼에서 제안된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향후 IUU 어업을 어획된 어종 전부를 수입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과제와 시기를 로드맵으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 부분
- 일본 정부는 “수산물 유통 적정화 법”을 내년 12월까지 시행할 예정
 - 동 법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불법 어획되기 쉬운 어종을 지정하여 유통망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
 - 국제적으로 IUU로 어획되기 쉬운 어종을 지정한 뒤, IUU 어업으로 잡힌 어획물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을 경우 수입 금지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음
- (IUU 어업 대책 포럼은 수입규제를 전 어종으로 대상 확대를 제안 이유)
 1. 수입 수산물 유통망이 불투명하여 어느 어종에도 IUU 위험이 있음
 2. 어종을 허위로 기재하여 규제를 빠져나갈 것을 사전에 상정
 3. 복수 어종을 취급하는 업자에게 각 어종 취급이 일률적인 편이 원만하게 수입 업무를 진행하기 쉬움
 4. 어종별로 IUU로 되기 쉬운 어종은 항상 변동이 있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어종을 선별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걸림

5. 수산물 시장에서 합법적인 어획을 하고 있는 어민과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위함

- 동 포럼은 유통 현장의 혼란과 실효성에 비추어 처음부터 모든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분석
- 시행 후, 몇 년 간 규제 경과를 검토하여 어종 확대를 논의, 어종 확대를 위해, 어떠한 관계자 간의 협력 체제나 거래 기록 전자화가 필요한지 논의 등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는 제안

출처 : 미나토 신문